

한-케냐 인프라협력센터

주간 건설 · 인프라 동향 보고 (5월 1~2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

○ 주요 경제 지표

	해당년/월/주/일	전년/월/주/일	참고시점
환율(1USD)	130	129	2025.04
인플레이션(%)	3.6	3.5	2025.3월
CPI(points)	144	143	2025.3월
정부부채비율(% of GDP)	70.1	66.7	2023년

출처:trading economics

- 케냐 2025/26 예산안, 경제 성장 목표에도 불구하고 재정 리스크 심화¹⁾
 - 케냐의 2025/26 회계연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지만, KES 11조를 초과하는 공공부채(GDP 대비 약 65%)가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.
 - 세입 부진 · 지출 압박 동시 진행, 세수 성장 둔화 및 비세수 수입 부진으로 재정 조달 여력 약화부채 상환 비용 증가, 부패 및 재정 관리 부실 우려가 정부 지출 압박을 가중.
 - 제로베이스 예산제 도입에도 한계. 정부는 제로베이스 예산(ZBB)을 도입했지만, 체감 효과는 미미, 미지급 청구서(backlog of unpaid bills) 문제도 여전히 심각.
 - 예산안 향후 일정, 4월 30일까지 재무부가 세부 예산안 국회 제출 예정, 5월 중 국민 참여 및 국회 심의 과정 진행 예정, 재정 건전성 및 집행 계획에 대한 엄격한 검토 예상.

1) 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article/2001516880/budget-2025-kenya-targets-growth-reality-suggests-economic-headwinds/#google_vignette

○ 루토 정부, 프랑스 중심으로 서방 중심 외교 강화²⁾

- 프랑스, 중국 제치고 1위 대출국 등극, 2024/25 회계연도 기준, 프랑스가 KES 264.9억 대출을 약정, 케냐 최대 양자 대출국으로 부상. 독일은 KES 167.1억으로 그 뒤를 이음.
- 중국 대출 약정 급감, 중국의 케냐 대출 약정은 KES 72.5억에 그쳐, 2015/16 회계연도(1400.3억) 대비 급격한 축소. 이는 국제적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중국의 신중한 대출 전략 전환 때문으로 분석됨.
- 루토 정부, 서방 외교 강화 주력, 분석가들은 루토 대통령의 서방과의 외교적 밀착하기 위해 현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이스라엘-하마스 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서방과 더 유사한 외교적 스탠스를 취함과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, 찰스 3세 영국 국왕 등 주요 인사 초청

○ 루토 대통령, 중국 국빈 방문, 인프라·무역 협력 강화 모색³⁾

- 에너지·석유부 장관 오피요 완다이(Opiyo Wandayi)는 2030년까지 100%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, 국내외 투자자 유치에 본격화하겠다고 밝힘. 정부는 수입 전력 의존도 축소 및 녹색 에너지 투자 환경 조성에 전념.
- 현재 케냐 전력의 70% 이상이 지열, 수력,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, 태양광도 산업·주거 부문에서 빠르게 확산 중.
- 완다이 장관은 투자자 신뢰 회복 및 민간 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로 2023년 도입된 전력망공급계약(Power Purchase Agreement) 신규 체결 금지 조치 해제를 국회에 요청,

○ 중국-케냐 무역, 2025년 1분기 사상 최고치 기록⁴⁾

- 중국-케냐 간 교역 규모가 161.3억 위안(약 USD 22.4억)을 기록, 전년 대비 11.9% 증가, 6분기 연속 성장세 유지. 수출입 모두 고른

2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france-topples-china-on-loans-as-president-ruto-looks-west--4632260>

3) <https://www.capitalfm.co.ke/business/2025/04/trade-investment-and-infrastructure-on-top-agenda-as-ruto-visits-china/>

4) <https://www.capitalfm.co.ke/business/2025/04/chinas-trade-with-kenya-hits-record-high-in-q1-customs/>

확장세: 중국의 대(對)케냐 수출: 11.8% 증가, 케냐의 대(對)중국 수출: 13.2% 증가,

- 양국은 60년 이상의 외교관계를 기반으로 경제 협력 및 무역 연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, 중국은 케냐의 최대 교역국, 케냐는 중국의 동아프리카 최대 교역 파트너로 자리잡음.
- 인프라·농산물 분야 교역 활성화-무역 증가는 중국산 인프라 자재를 통한 케냐 인프라 개발 지원, 아보카도, 홍차 등 케냐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.

○ IMF, 케냐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 소폭 하향⁵⁾

- GDP 성장률 전망 5.0% → 4.8%로 IMF은 케냐의 2025년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 전망을 5.0%에서 4.8%로 소폭 하향 조정. 이는 국제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한 조치.
-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가 세계 무역 흐름에 충격을 주면서, 케냐 역시 간접적인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 케냐 수출에 대한 직접 피해 규모는 약 USD 1억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, 교역 연쇄 차질, 시장 불확실성 심화 등 간접 요인이 성장 둔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.
- 물가 전망은 안정적: 2025년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4.1% 예상, 이는 국가 재무부 목표치(5%)보다 낮은 수준으로 물가안정은 경제 운용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됨.

② PPP 관련 동향

○ 세계은행, 탄자니아 Regrow 프로젝트 실패 대응 위해 USD 1.12억 배정⁶⁾

- 남부 탄자니아 Ruaha 국립공원 인근 지역 개발을 목표로 한 'Resilient Natural Resource Management for Tourism and Growth(Regrow)' 프로젝트, 강제 퇴거와 지역 주민에 대한 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

5) [IMF sees slower growth in Kenya amid Trump tariff chaos](#)

6) <https://www.theeastafrican.co.ke/tea/business-tech/world-bank-to-spend-112m-fix-flaws-in-wound-up-tanzania-project-4998022>

의혹으로 조기 종료.

- 월드뱅크(WB), 독립 조사단, 규정 미준수 확인 WB 독립 조사패널은 자체 정책 미준수, 위험 평가 부족, 특히 탄자니아 국립공원청(Tanapa)의 강경 집행 조치로 인한 주민 피해를 주요 문제로 지목.
- WB 추가로 사후 구제 및 대체 생계 지원 자금 배정: USD 280만을 직접 보상 프로그램(Redress Initiative), USD 1억 1,000만을 대체 생계 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배정해, 피해 지역 주민 지원 및 국가 차원의 대안 사업 추진을 약속. 이번 사례로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인권 및 위험관리 중요성 부각 Regrow 실패는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사회·환경 기준 준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환기시킴

○ 루토 대통령, 중국 국빈 방문 Sino-Kenya 협력 재가동⁷⁾

- 윌리엄 루토 대통령, 중국 국빈 방문 중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협약을 확보, 케냐-중국 간 협력 관계가 재활성화되는 전환점을 맞음
- 핵심 사업: 표준궤 철도(SGR) 나이바샤-말라바 구간 연장, 나이로비-나쿠루-마우서밋 고속도로 복선화(듀얼링) (기존에는 프랑스 기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, 중국 기업이 새로 수주하게 됨)
- 이번 프로젝트들은 전통적 부채 조달 방식 대신, 공공-민간 협력(PPP) 모델을 통한 금융 조달 계획이 추진되며, 재정 부담 최소화 및 사업 지속 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함.
- 일대일로(BRI)와 케냐의 전략적 연계 강화 이번 협력은 중국의 '일대일로(Belt and Road Initiative)' 구상 내 케냐의 전략적 위치를 부각시키며, 지역 연결성 및 무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을 노림.

○ SGR 나이바샤-말라바 연장, USD 45억 다자간 금융 모델로 추진 확정⁸⁾

- 케냐, 나이바샤-말라바 간 표준궤 철도(SGR) 연장 사업(USD 45억

7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china-in-big-comeback-with-mega-infrastructure-deals-5016102>

8) [Kenya 'agrees' to multi-way funding model for SGR extension to Malaba](#)

규모)에 대해 다자간(multi-way) 금융 모델을 도입하기로 합의.

- 구체적인 조달 비율 :30%: 케냐 정부 직접 투자,40%: 중국계 인프라 대출기관과 케냐 은행 간 상업적 합작 투자, 30%: 중국 정부 추가 지원
- 계약에 따라 중국 기업이 최소 25년간 건설 및 운영을 독점 수행, 이를 통해 투자비용 회수 및 운영 수익 보장 구조를 마련.
- 이번 합의는 루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성사되었으며, 지역 연결성 강화 및 동아프리카 무역 촉진을 핵심 목표로 삼음.

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

○ 엘도렛 도로 프로젝트, 자금 지연으로 정체⁹⁾

- Eldoret t1 내 도로 건설 및 배수 개선 프로젝트가 세계은행(World Bank) 자금 집행 지연으로 진행 중단.
- 해당 사업은 케냐 임시 거주지 개선 프로그램(Kenya Informal Settlements Improvement ProjectKISIP)의 일부로, 도시 인프라 개선 및 주거 환경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던 중. 자금 지연은 프로젝트 적기 완료를 방해하고 있으며, 이는 지역 주민 생활 수준 향상과 도시 경제 활성화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.
- 현재 지방정부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며, 자금 문제 해결 및 공사 재개 방안을 모색 중.

○ Gogo 수력발전소 업그레이드에 관개 인프라 통합¹⁰⁾

- 케냐 에너지부 오피요 완다이(Opiyo Wandayi) 장관은 미고리 카운티 Gogo 수력발전소 업그레이드 사업에 관개 인프라를 통합할 계획을 발표.
- 농업 생산성 및 식량 안보 강화 목표: 안정적인 관개용수 공급을 통해 지역 농업 생산성 향상 농민 생계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, 식량 안보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
- 본 사업은 에너지-농업-경제개발을 연계하는 통합형 인프라 전략의 일환으로,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정

9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counties/rift-valley/2025-04-19-roadworks-in-eldoret-stall-over-delays-in-world-bank-funding>

10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national/article/2001516776/power-plant-to-include-irrigation-says-cs-opiyo-wandayi>

책 방향과 부합.

-

- Ketraco, KES 122.6억 규모 국가 전력제어센터(NSCC) 착공¹¹⁾
- KPA는 KES 157억(약 USD 1억 2,200만)을 투자해 몸바사항에 19B 신규 선석을 건설, 최대 45,000 DWT(재화중량톤)의 중형 컨테이너 선 수용을 목표
- 사업 시행사: 프랑스 Grid Solution SAS, 인도 Larsen & Toubro, 양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, 2028년 1월 완공 목표.
- 주요 특징 및 지원: 기존 주자로드(Juja Road)에 위치한 케냐파워 운영 제어센터 대체, 수스와(Suswa) 지역에 백업 제어센터 구축, 프랑스개발청 (AFD) 및 프랑스 재무부 지원으로 추진.
- 전력 인프라 현대화 전략의 일환 본 프로젝트는 전력망 안정성, 운영 효율성 향상, 전력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케냐 전력 인프라 현대화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 평가됨.

○ 탄자니아, 8개 지역에 케이블카 도입 추진¹²⁾

- 탄자니아는 킬리만자로, 음베야, 이링가, 아루샤, 다르에스살람 등 8개 지역에 케이블카를 포함한 케이블 운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, 이는 관광 활성화 및 산악·혼잡 지역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함.
- LATRA, 케이블 운송 규제 맡아 육상교통규제청(Land Transport Regulatory Authority-LATRA)가 새로운 케이블 운송 시스템의 규제 감독 기관으로 지정,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확장됨.
- 기존 관광 서비스 보완 목적: 현지 포터(porters) 일자리 대체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는 케이블 운송은 기존 관광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임을 강조
- 이번 사업은 탄자니아 관광 부문 경쟁력 강화와 함께, 전국 교통 네트워크 현대화 전략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음.

○ 나이로비, BRT 시범사업 시작, 111번 노선 고정요금·정시버스 운영 도입¹³⁾

11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industry/ketraco-power-dispatch-hub-project-starts-in-may-5011924>

12) <https://businesstoday.co.ke/tanzania-to-introduce-cable-transport-to-spur-tourism/>

- 나이로비는 111번 노선에 고정요금제 및 정시운행 버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(Bus Rapid Transport-BRT)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. 이는 통근 신뢰성 향상 및 요금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.
- 기존 마타투(matatu*) 서비스 한계 보완: 마타투 서비스의 시간 불확실성을 개선하고, 보다 구조화되고 예산 친화적인 대중교통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.

*마타투(Matatu): 케냐의 대표적인 미니버스 대중교통 수단

- BRT 3호선 개발 위한 대규모 자금 확보 €3억 2,000만(KES 434억), 단도라(Dandora)~케냐타국립병원(KNH) 간 12km 구간 BRT 노선 건설 예정.
- 전체 BRT 프로젝트는 5개 주요 노선을 통해 교통 혼잡 해소 및 도시 이동성 개선을 목표로 함.

○ 키수무 국제공항, KES 49억 확장사업 본격화¹⁴⁾

- 케냐 정부, 키수무 국제공항(Kisumu International Airport)에 KES 49억 규모의 확장사업을 추진 중이며, 그 일환으로 화물 전용 처리시설(cargo handling facility) 건설을 가속화.
- 수출 경쟁력 제고 위한 인프라 확충 ,수화물(cold storage) 구역 신설: 대형 국제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연장 → 생선, 쌀, 원예작물 등 지역 농수산물의 유럽 및 해외 시장 수출 확대 목표
- 케냐공항공사(KAA) 청사진: 평행 유도로(parallel taxiway), 화물 전용 주기장(cargo apron). 꽃·채소·과일·생선 가공을 위한 전문 포장 시설(pack houses) 설립 등이 포함됨.
- 최종 목표는 키수무 공항을 동아프리카 지역 물류 및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.

○ 우간다, UAE와 USD 40억 정유소 건설 계약 체결¹⁵⁾

- 우간다는 UAE의 Alpha MBM과 협력해 서부 지역에 하루 6만 배럴

13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04-23-nairobi-begins-piloting-fixed-fares>

14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shipping-logistics/state-prioritise-cargo-section-in-expansion-of-kisumu-airport-5014708>

15) [Implications of Uganda refinery deal for Kenya oil infrastructure](#)

처리 규모의 정유소를 건설하는 USD 4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, 자
국 원유 상업화에 중대한 진전을 보임.

- 정유소 가동 시, 오프쇼어 수입보다 경쟁력 있는 ex-refinery 가격(정유
소 출고가) 제공 가능성이 커 케냐의 석유 수입 및 환적 허브 지위에
영향을 줄 수 있음.
- 이번 정유소 개발은 지역 석유 무역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도전
요소인 동시에, 우간다의 석유 산업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
기회로도 해석 가능. 케냐는 기존 인프라의 개선 및 역내 에너지
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\

[4] 정치 동향

○ 케냐-네덜란드, 2025년 정상회담서 다분야 협력 강화¹⁶⁾

- 3건의 정부 간 MoU, 2건의 의향서, 8건의 기업 간 MoU 체결,
2025년 3월,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의 케냐 국빈 방문 중,
양국은 농업, 물류, 보건, 에너지,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
총 13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.
- 핵심 사업: 냉각 조달 시스템 구축 케냐산 원예농산물(horticultural
produce)을 표준궤 철도(SGR)를 통해 몸바사항까지 운송, 이어
로테르담항까지 저탄소 운송하는 녹색 물류 체계(green logistics
system) 개발 계획이 포함됨.
- 케냐 농업부 무타히 카그웨(Mutahi Kagwe) 장관, 케냐가 EAC,
COMESA, AfCFTA 등 지역 무역블록 내 전략적 위치를 갖췄음을
강조하며, 투자 친화적 환경과 체결된 협약 이행에 대한 강한
의지를 표명.

○ 케냐·우간다, 걸프 산유국과 석유 신용공급 계약 체결¹⁷⁾

- 사우디 아람코·아부다비 아드녹·에미리트 에녹과 180일 신용계약

16) <https://businesstoday.co.ke/kenya-public-university-debt-crisis-tuk-insolvent/>

17) <https://www.theeastafrican.co.ke/tea/business-tech/will-kenya-uganda-dalliance-gulf-oil-majors-deliver-cheap-fuel--4998946>

체결, 케냐와 우간다는 사우디 아람코(Saudi Aramco),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(Adnoc), 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(Enoc)와 계약을 맺고, 180일 신용조건으로 석유제품 공급을 확보.

- 케냐는 이번 계약을 통해 디젤, 휘발유, 항공유 가격을 최대 14% 인하, 환율 안정, 연료 공급 안정성 확보를 기대.
- 우간다는 우간다 국영석유회사(UNOC)를 유일한 석유 수입사로 지정, 바레인계(Vitol Bahrain)과 협력하여 케냐 중개업자에 대한 의존도 감소 및 자국 연료 공급망 재구성 추진.
- 연료시장·역내 무역 구조 변화 우려도 제기 한편, 시장 왜곡 가능성, 장기적으로 동아프리카 역내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.

○ 루토 대통령, 중국 국빈 방문 중 KES 1,070억 규모 투자 유치¹⁸⁾

- 루토 대통령, 중국 국빈 방문 중 제조업, 농업, 관광,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약속을 확보. 주요 투자 프로젝트: 중국우이(China Wuyi), 킬리피(Kilifi)에 KES 195억 규모 경제특구(SEZ) 조성
- 룡타이 스틸(Rongtai Steel Limited): 루케냐(Lukenya)에 KES 195억 규모 제철소 건설, 존켄 그룹(Zonken Group): 바링고(Baringo)**에 KES 416억 규모 알로에베라 가공시설 설립
- 이번 투자들은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케냐의 경제 성장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. 루토 대통령은 세제 인센티브, 안정적인 규제 체계 등 케냐의 투자 친화적 환경을 적극 홍보하며,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관문으로서 케냐를 부각시킴.

○ 루토 대통령, 2024/25 예산 1,770억 KES 감축¹⁹⁾

- 루토 대통령, 2024/25 회계연도 국가예산을 1,770억 KES 축소, GDP 대비 재정적자를 4.5% 이내로 억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됨.

18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04-23-ruto-secures-sh107-billion-chinese-deals>

19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realtime/2025-04-30-ruto-chops-billions-off-2025-budget>

- 정부 긴축조치 주요 내용: 기능 중복 47개 국영기관 폐지, 차량 구매 및 해외출장 등 비핵심 지출 동결. T대통령실 포함, 전 부처의 비공개(기밀) 예산 전면 폐지
- 예산 삭감은 에너지, 도로, 교육 등 핵심 개발 부문에 집중, 주요 인프라 사업 중단 또는 지연 가능성 제기됨.
- 이번 긴축은 전국적인 청년 주도 세금 인상 반대 시위로 인해 2024 재정법안(Finance Bill 2024) 철회 이후 단행된 조치로 예상

○ 전 부통령 가차과, 루토 대통령르이 ‘가짜 개발 사업’ 비판²⁰⁾

- 전 부통령 리가티 가차과(Rigathi Gachagua)는
- 루토 대통령이 실제 없는 ‘가짜 개발사업’을 개소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. 일부 프로젝트는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, 계획이 미흡하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주장.
- 가차과는 이러한 사업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일 뿐,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.
- 이번 발언은 여당 내 긴장감을 높이고, 정부의 일부 개발 프로그램의 정당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.

20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news/politics/gachagua-president-ruto-launches-fake-projects--5019576#story>

□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

1 일반 프로젝트 동향

① Nairobi River Regeneration and Engineering Works Expansion Programme²¹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Government of Kenya
- (도 급 사) 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 (CEEC)
- (사 업 비) KES 50 billion
- (편 당) CEEC
- (사업내용)
 - 60km 하수관로 건설: 나이로비 강을 따라 총 60km 길이의 하수도 라인 설치 예정.
 - 저소득층 대상 주거단지 조성: 재정비 지역에 5만 세대 규모의 저렴한 주택 건설.
 - 녹지 및 보행자 공간 조성: 친환경 공간과 산책로 개발로 도시 환경 개선.
 - 홍수 대응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: 도시 재난 위험 완화와 위생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.
 - 60m 하천 보호구역 설정:
 - 30m 리파리안 그린벨트,
 - 30m 개발구역 포함해 총 60m 완충지대 조성.
- (추진현황)
 - 2025년 3월 10일: 루토 대통령, 카무쿤지(Kamukunji)에서 '나이로비강 복원 및 엔지니어링 프로그램' 공식 출범.
 - 2025년 3월: 나이로비강 회랑(Nairobi River Corridor)을 특별계획구역(SPA)으로 지정,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 및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법적·정책적 기반 마련.
 - 2025년 4월: 강 주변 거주민들에게 강제 철거는 없을 것임을 공식 약속, 대신 인근에 신축된 저렴한 주택 제공, 기존 거주민에게 우선 소유권 부여 방침 발표. 30m 개발구역 포함해 총 60m 완충지대 조성.

- (주요상황) 'Climate Works Mtaani Initiative' 를 통해 현재 22,000명 수준의 고용을 40,000명으로 확대할 예정. 나이로비강 위원회-주택부, 환경부, 국방부와 협력하여 사업 이행 총괄. 사업 범위는 나이로비 카운티를 넘어, 키암부(Kiambu), 마차코스(Machakos), 카지아도(Kajiado), 무랑가(Murang'a)까지 확대, 지역 주민 복지 향상과 도시 회복력 제고를 목표

21) <https://www.president.go.ke/president-ruto-launches-ksh50-billion-nairobi-river-regeneration-project/>

② Mzima II Water Supply Project²²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Government of Kenya (Ministry of Water, Sanitation and Irrigation)
- (도 급 사) 미공개
- (사 업 비) KES 50.6 billion
- (편 당) PPP
- (사업내용)
 - 총 220km 송수관 건설 포함, 해안 지역 물 부족 해소를 위해 220km 길이의 대형 수도관 건설 추진. 정수장(Water Treatment Plant), 저장 탱크(Storage Tanks), 급수망(Distribution Networks) 등 포함, 지속가능한 수도 공급 체계 마련 목표. 지역 수자원 안정성 및 생활 개선 기대 본 사업은 해안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향상 및 장기적 도시·농업 수자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.
- (추진현황)
 - 2023년 4월: 당시 장관 앨리스 와호메(Alice Wahome)가 같은 해 9월 착공 예정이라 발표했으나, 착공 불발.
 - 2024년 3월: 현직 장관 자카리야 은제로(Zachariah Njeru)가 비용 과다 및 투자자 관심 부족으로 프로젝트 중단 사실을 공개, 재공고 계획 발표.
 - 2024년 12월: 정부는 Mzima II 송수관 사업을 국가 물·위생 계획(NWSP)에 포함,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 열림.
 - 향후 전망: 본 사업은 민관협력(PPP)을 통한 재정비 및 착수 재추진 중. 전망됨.

- (주요상황) 2024년 3월: 기존 자금 조달 실패로 인해 사업 향방 불투명, 정부는 재공고 및 신규 투자자 유치 추진 계획 발표. 2024년 12월: 국가 물·위생 계획(National Water and Sanitation Plan)에 Mzima II 사업이 포함되며 정부의 이행 의지 재확인, PPP 방식 도입을 통한 본격적 재추진 기대

22) https://pppkenya.go.ke/ova_por/mzima-ii/